

한라인터뷰 정태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장

“재난안전 책임기관의 따뜻한 영향력 전할 것”

신사옥 건립 및 봉사·기부자 명예의 거리 조성 역점
재난·고통 현장 달려가는 적십자... 촘촘한 지원 추진

“제35대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장으로 취임하며 촉구영웅 펠레가 마지막까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라. 영원히 사랑하라’”

정태근(사진)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장은 적십자사의 핵심 가치인 인도주의와 맞닿아 있는 펠레의 말을 소개하며 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지난달 16일 취임한 정 회장은 요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봉사자와 기부자들을 만나고 적십자사의 역할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요즘 참 행복하고, 행복해지는 느낌”이라며 “남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 함께 있는 공기가 따뜻해지고 짧은 기간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임기 동안 적십자사의 미래를 향한 초석을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란조끼의 천사’로 불리는 3000명 규모의 적십자 봉사원과 1억원 이상 기부를 실천한 ‘레드크로스 아너’ 등 3만7000명 후원자들의 선한 영

향력을 지역 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신사옥 주변에 ‘적십자 명예의 거리’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봉사원들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고, 사회적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적십자사가 진행하고 있는 밑반찬·김치·제과제빵 등 다양한 봉사 이외에도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봉사원 조직을 통해 먼저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와 함께 미래의 꿈나무인 RCY 조직 강화와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통해 RCY 단원들이 나눔과 봉사 정신을 배우고 미래의 나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1947년 창립된 제주적십자사는 제주4·3의 현장에서 이재민 구호와 의약품을 지원하고 화재, 풍수해 등 제주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재해 복구에 앞장서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다.

지난 몇 년간 제주적십자사 상임위원, 70년사 편찬위원, 개



인 후원 등 적십자사와 인연을 맺어 온 정 회장은 가장 어렵고 힘든 도민들의 옆에 적십자사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적십자사 활동의 근간에는 도민 여러분이 정성껏 모아주시는 성금이 있고 도민의 사랑과 관심이 있다”며 “애정을 가져주시는 만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책임감도 무겁지만 봉사원들과 후원자님, RCY 단원 등 적십자 가족이 동행해 주시기에 든든하다”고 했다.

이어 “제주지역에 다른 기관들과도 협업해 어려움이 있는 곳을 더욱 촘촘하게 이웃을 어려움을 보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적십자사가 도민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오영훈 도지사, 오임종 전 회장에 감사패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3일 오전 집무실에서 지난 2년간 4·3희생자 유족회장 직을 수행하며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이바지한 오임종 전 4·3 유족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 지사는 “오 전 회장님께서 그동안 제주4·3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4·3특별법 전방개정과 일부개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병삼 제주시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3일 집무실에서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회장 정태근)에 전달했다. 특별회비는 재난 구호 활동, 소외 계층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상인 해경서장 치안 현장 점검

이상인 제주해양경찰서장이 현장 최일선 부서인 파출소와 출장소, 주요 항·포구 및 취약 연안 해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대응 태세를 확인했다.

이상인 서장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제주파출소와 한림파출소 관내 현장 부서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고 한림·고산 유도선 선착장을 찾아 차귀도, 비양도 유도선 이용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본보 이상민 기자 제주도기자상 수상



한라일보 행정사회부 이상민(사진) 기자가 2022년 제주도기자상 취재·보도 부문자로 결정됐다.

제주도기자협회(회장 좌동철)는 지난 3일 2022년도 제주도기자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인문계·학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주도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범훈)는 대상, 최재보도, 기획취재, 보도사진·영상, 편집 부문에 출판한 총 31편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취재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한라일보 이상민 기자의 ‘유령 연구원 만들어 인건비 가로 찬 교수’는 대학 교수의 인건비 횡령 보도를 통해 제자를 유령 연구원으로 올려 연구비와 보조금을 가로채는 도덕적 문제를 지적한 것을 넘어 연구원 선발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 보도로 대학 측은 진상조사팀을 꾸려 감사에 착수했고,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명예 문학박사

제주대학교는 지난 2일 아라컨벤션홀에서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에게 명예 문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제주대는 “서 이사장은 제주올레를 통한 제주어와 제주의 독자적인 문화 소개, 역사 및 문화 활성화에 공헌을 했고 후학들에게 새로운 인재상과 리더의 표상이 되었기에 명예 문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고창후 고문변호사 위촉

서귀포시는 최근 고문변호사로 고창후 변호사를 신규 위촉했고, 김용학 변호사를 재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2년이다.

제주시·울릉군 상호 고향사랑기부금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과 김규을 울릉군 부군수는 지난 3일 울릉군과 제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안 부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 확산으로 양 지역 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 긴밀한 교류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 부시장은 이번에 울릉군을 방문해 인적 교류, 울릉도 거주 제주해녀 지원 방안 등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일반여행업등록 제1016호★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터 & 인센티브제주여행 상품 인증 /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날개 달린 품격여행

예약품질
마감임박!

BEST **대박 편한 패키지**

국내전문 가이드 + 2인1실 + 추가금액 0원

01 산수유/매화 볼꽃 여행
3/17 2박3일 **581,000원**

02 하동 벚꽃 여행
3/31 2박3일 **574,000원**

03 제천 한방/스파
4/24 2박3일 **554,000원**

01 베트남 다낭 3박5일
2/23 4/28 출발
1,290,000 원
(5성급 관광패키지)

02 타이페이/야류/지우펀+101빌딩 4일
3/7, 3/15, 3/21 3/11, 3/18
평일/출발 토/출발
829,000원 869,000원

03 라오스 3박5일
2/3, 4/12
1,290,000 (관광)

02 오사카 3박4일
매일 출발
780,000원~

04 제주 출발 싱가포르 여행
싱가폴/바탐 5일
(3/1, 3/8, 3/15)
1,390,000원

06 태국 치앙마이 3박5일
2/16, 3/23 출발
1,290,000원
골프 **1,750,000원**

IATA 공/통/사/행 왕복항공료, 1급호텔(2인1실), 일정상의 식사제공, 관광지입장료, 전용차량료, 인솔자 부분별 동행, 1억원여행자보험,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최소 15명이상 출발 모집마감-선착순 ★불포함 : 가이드 & 기사 팀/개인비용